

# 자비 인술 베풀고 불교알리고



## 신행연장

### 병원복지원 의료봉사



전국 병원복지연합회 의료봉사단원들이 8일 충남 서산 원평수련원에서 무료 진료를 하고있다.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서산마애삼존불로 유명한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리, 80호도 채 안 되는 가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 가운데 위치한 원평화생수련원에 8일 아침부터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전국병원복지연합회(회장 김주호) 소속 국립서울시립정신병원, 국립경북병원,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경희의료원, 한일병원 등 7개 병원 의사 5명과 간호사 20명을 비롯한 50여명의 의료봉사단원들. 파스한 봄비가 내리지는 가운데 의료기기를 옮기며 임시 진료소를 설치했다.

오전 10시 진료가 시작되자 마을 주민들이 하나 둘씩 진료소를 찾아왔다. 이들은 비록 서산시 보건소 원평지소가 있지만 감기 몸살 등 간단한 진료밖에 받을 수 없는 이곳에 서울에서 의사들이 직접 찾아와 무료진료를 한다는 마을 이장의 말을 듣고 하면 일을 잠시 멈추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이내 데스크를 맡은 한일병원복지회 이영숙 회장(간호사)이 말을 건네자

### 의사·간호사 50명 동참

### 봄-가을 봉사 정례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 오지마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무료 의료봉사는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농촌 마을 주민들에게 자비인술을 베풀고 불교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내과, 안과, 물리치료, 치과, 한방과 등 5개 진료과 실시된 이번 의료봉사는 전국공무원복지연합회(회장 노옥섭)와 연계해 공동으로 준비했다.

폐교를 개조해 만든 학생수련원이라 교실 세 칸에 임시 진료소를 설치한 봉사단원들은 진료에 앞서 간단한 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의술로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중생의 고통을 다스리나마 덜어주십시오”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하겠어. 허리도 아프고...” 이영숙 회장은 간단히 혈압을 잰 후 김만순(58) 할머니를 부축해 한방과로 안내한다.

농촌지역은 고된 농사일로 근육통과 신경통이 많은 것이 특징. 그래서인지 많은 주민들이 이날 한방과를 찾았다. 젊은 시절 과도한 노동으로 평소에 팔 다리는 물론 허리가 아픈다는 황초자(75) 할머니도 한방과에서 부항과 침 치료를 받았다.

다리가 아파 몸을 뜨고 나온 박완규(66) 원평리 이장은 “지금이 농번기라 다쳐도 일손이 부족해 병원에 갈 수 없어 집에서 파스를 바르는 것

이 고작’이라며 ‘마을 주민을 대표해 전국병원복지연합회 회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인근 성덕암에 다닌다는 정정례 할머니는 눈이 아파서 안과를 찾았다. “할머니 눈 아픈 것이 큰 병이 아닐까 마음 걱정이 많았지요. 이런 병이 아니라 나이가 드셔서 그런 것이니 눈 아플 때마다 관세음보살 5번씩만 염불하세요” 안과 진료를 맡은 김재명 경희의료원 교수의 자상한 말을 듣자 정 할머니의 얼굴에서 안도의 미소가 활짝 피어났다.

이날 무료 진료소를 찾은 사람은 모두 75명. 내과 54명, 치과 16명, 안과 21명, 한의과 54명, 물리치료 26명 등 중복 진료를 받은 사람까지

합하면 모두 180여명이 진료를 받았다. 이번 무료진료에 동참한 동국대 한방병원 구병수 교수는 “의료봉사가 의료서비스에 소외된 계층에게 병을 치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심리적 안정까지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봉사의 의미를 밝혔다.

전국병원복지회 김주호 회장도 “부처님 동체대비사상의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리고 연합회 조직도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매년 봄, 가을 두차례의 의료봉사활동을 정례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두석 기자 (doobi@buddhapia.com)

## 주제가 있는 법문

# ‘절마다 도서관 만들기’ 중단차원 불사 마땅



송암  
도솔산 도파안사 주지

포교나 전법은 일반적으로 언어와 문자를 빼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특히 전문화된 지식사회가 필수적, 사회가 분화하여 다양하게 발달할수록 언어, 문자의 역할과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오늘날에 와서는 절대적인 권위와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스승이신 광대스님이 펼친 새불교 운동의 시작도 이러한 문자의 기능을 활용한 ‘월간 불광’으로 부터였습니다.

“사람이 정작 사람인 까닭이 뛰어난 정신에 연유한 것이라면 그 증거가 말과 글이 아닐까. 인간의 말과 글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고유한 것이야, 그리고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말과 글은 진리의 훌륭한 문명이야.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 없거

### 책 속에 깨달음 있다 주민 문화포교 도움

나 통로가 없다면 닫혀있는 것이고, 닫혀 있는 것은 마침내 없는 것이나 같지 않겠어.”

스님께서는 제자인 저에게 항상 문서 포교의 중요성을 이와 같이 반복해 들려주시고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절에서 지금보다 더 포교를 열심히 하고 이익중생의 사업을 더욱 왕성하게 실천한다면 실로 우리 나라 전국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큰 힘이 솟아나 나라의 기풍이 크게 진작될 뿐만 아니라 새롭고 신선한 기운이 나라 전체에 가득 넘칠 거야. 전국에 있는 각 절마다 제각기 도서관을 두어서 그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교양의 중심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조계종에서 대대적으로 전국 사찰에 도서관 설립 운동을 벌인다면 아마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수천 곳의 도서관이 우후죽순처럼 속속 등장하여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거야. 거기다가 성장기적인 10년 계획을 목표하여 차근차근 내실을 기해 가

며 주변의 협력을 받아 책에 대한 인식과 독서의 중요성을 선도와 지역 주민들에게 일깨워 간다면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절의 스님이나 신도들이 크게 도움을 받을 것이고 차츰 그 지역 주민들까지 편리하게 책을 볼 수 있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 우리 나라는 순식간에 일류 지식국가 및 문화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야. 또 그 여파로 불교 출판물 비롯하여 불교학의 발전도 가히 비약적으로 이루어질거라 생각해.”

스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글속에 바쳐 우리 절이 비록 산중에 있어도 산 열어(開山) 손쉬운 조립식으로 대응전 짓고 부처님 모신 뒤 그 다음 한 일이 도서관 설치였습니다.

문화, 예술, 교육 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그 밑바닥의 정신을 철학이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다양한 문화 형태의 철학을 거의 누구나 책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실을 직시하여 중단차원 종책 불사로 각 절마다 도서관 설치 운동을 벌여 나간다면 그 결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인간은 매일매일 크고 작은 자기 깨달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가다듬기도 하고 보충하거나 바로 세우기도 하며 마침내 진정한 자기의 참모습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불패책을 통해 일깨워주는 깨달음은 실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책을 가까이해 책 속에서 길을 찾으며, 성숙을 찾고, 인간 공의(公義)를 찾는다면 한층 사회는 안정되고 윤택하며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불국토를 건설하는 출발이고 뜻이 될 것입니다.

## 신행 캘린더

4월 18일(수)

■광주불교방송 개국 6주년 기념법회=광주불교방송은 오후 2시 남도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곡성 성륜사 조실 청화스님을 모시고 개국 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062520-1111)

4월 19일(목)

■보조국사 유물유적 특별전=송광사는 5월 31일까지 성보박물관에서 보조국사 유물유적 특별전을 개최한다.(061755-0107)

4월 20일(금)

■남북통일과 대구시민을 위한 기원법회=대구광역시 불족위원회는 오후 6시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남북통일과 대구시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053254-9895)

■봉선사 조실추대 및 주지전신식=조계종 25교구본사 봉선사는 오전 10시 큰법당에서 월운 해룡스님 조실 추대식과 두산 일연스님 주지 전신식을 봉행한다.(031527-1951)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 개원식=부산불교사회복지연합회(회장)는 오후 2시 부산불교회관 여의선원 8층 대법당에서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 개원식을 개최한다.(051868-0951)

4월 21일(토)

■선학원 시민선방 철야정진=선학원 중앙선원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선실에서 참선정진 철야법회를 봉행한다.(02732-3327)

■조계사불교대학 3천배 정진법회=조계사불교대학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3천배 정진법회를 봉행한다.(02720-1390)

4월 22일(일)

■다보사 개원 3주년 기념법회=서울 성내동 다보사는 오전 10시 법당에서 속리산 범주사 혜정스님을 모시고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02475-6633)

■108후불 조성불사 점안식=보현불교대학은 오전 10시 큰법당에서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을 모시고 108후불 조성불사 점안식을 봉행한다.(042624-6555)

■중흥사지 대중전 기공식=북한산 중흥사 중흥복원 불사추진위원회는 오후 2시 대중보전 기공식을 봉행한다.(02355-4488)

■한미음선원 불사추진위원회=한미음선원 불사추진위원회는 오전 11시 법당준공 및 점안대법회를 봉행한다.(052244-0884)

## 생활속의 불교

## 누구라도 보시할 것은 있다

자연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준다. 하나를 심어 열을 수확하게 해 준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로지 아낌없이 주기만 할 뿐이다. 완벽한 무주상인 것이다. 그렇게 산 갈이, 물 갈이, 바람갈이, 태양갈이 주는 것이 보살의 마음자리요 진정한 보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 보시를 한다.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묶여서 하고, 이름을 써서 ‘내가 했노라’ 확인하고 싶어한다. 보시를 했으니 조만간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은연 중 기대를 하기도 한다.

남들은 때 맞춰서 보시를 잘도 하는데 나는 재물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나

핑계이다.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보시할 아무 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설사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물 한그릇, 풀 한포기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입은 옷 한 벌 뿐이라 해도 옷깃을 찢어 남의 상처를 싸매줄 능력이 있다. 또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 남이 보시하는 것을 거들어 주고 남이 보시하는 것을 기뻐해 줄 힘은 있지 않겠는가.

빈자일등(貧者一燈)의 교훈도 있다. 동냥할 기운만 있으면 보시할 힘이 있다.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보시할 힘이 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도 보시다. 용서하는 마음도 보시다. 스승을 공경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도 보시다, 하심·결양도 보시다.

모임의 화합을 위해 애쓰도 보시오, 부드러운 말도 보시다. 슬픔에 잠긴 이를 위로하는 것도 보시행이요,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일도 훌륭한 보시이다. 굶주리는 이를 보고 내 한끼의 식사를 아껴서 도와주는 것도 보시다. 장애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는 것,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길을 묻는 이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는 것도 보시행이다.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 한 보시할 재물 없음을 탓하지 말라. 남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을 갖는 것은 직접 보시하는 것과 같다(인과경고) 했다. 자비심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백천생애에 천보가 귀족하다(지장경)고 했다.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어찌 보시할 게 없다고 하겠는가. ■龍眼

### 22차 한일·일한 불교문화교류대회

한일 양국의 불교문화 교류와 사회복지사업 및 학술교류 등을 통한 불교발전과 호우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불교문화 교류활동을 펼쳐 온 지 22주년이 되었습니다.

금번에 개최되는 제22차 대회는 『불교의 효사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일 양국 불교지도자가 참여하여 기념법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행사명	일시	장소
환영만찬	2001년 5월 14일 18:00~21:00	서울 엠버서더호텔 2층 연회장
본대회	2001년 5월 15일 10:00~11:45 13:30~16:30	법요식(봉은사) 세미나 및 불교문화공연(봉은사)
성지순례	2001년 5월 16일 08:00 ~ 18:00	용주사 및 이천도예단지

\* 동참하실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5년 4월 10일

사단법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서정대 이사장 이흥파 사무총장 전남정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5 3층  
☎ 02-725-3677, 720-1708 fax 02-720-1709

### 현시대의 불(火)의 병은 어디에서 왔나?

성인병의 신호탄 石楠葉(석남엽)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도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나?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종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대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도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안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배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유정, 정자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청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 “불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 [ 마·가·목 ]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삼시다. 프로에서 불기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계를 당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에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腎臟)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이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페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 마가목은 복수기엔 위양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기비법입니다. (016) 222-770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정경대 전 입장